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정부 소유 기업 인수시 출총제 제한 배제
- 국제 원자재價 급등으로 기업 채산성 급속 악화

경영 노트

- 프라이빗 बैं킹 시장 동향과 국내 업체의 대응 전략

사회 트렌드

- 서울 '삶의 질', 세계 89위
- 마이거진(Mygazine)

저널 브리프

- 국제 금융 허브 런던의 화려한 부활

洗心錄

-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 정부 소유 기업 인수시 출총제 제한 배제

- 지난 11일 정부는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에 대한 출총제 졸업 요건 완화, 정부 출자 기관 소유 기업에 대한 인수시 출총제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 이에 따라 KT, 한전, 포스코, 철도공사 등 사실상 대주주가 없는 민영화된 공사와 해당 계열사 51개사가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출총제 제한에 해당되는 기업이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총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함
 - 이에 해당되는 주요 인수 대상 기업으로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건설 등 舊 대우그룹 관련 5개사와 쌍용건설이 해당됨
- 이번의 출총제 완화 정책으로 자금 동원력이 높은 국내 주요 산업 자본들의 적극적인 M&A 시장 참여가 예상되어, M&A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 국제 원자재價 급등으로 기업 채산성 급속 악화

- 최근 금, 구리, 아연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뉴욕상품거래소(COMEX: Commodity Exchange of New York)에 따르면 6월 금 선물 가격이 2006년 4월 10일 작년말 대비 17% 상승한 온스당 607.3달러를 기록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600달러 선을 돌파함
 - 또한 구리, 아연, 니켈 등의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하고 있음
- 국제 유가 급등세와 더불어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 업체들을 중심으로 채산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조업 단축 및 중단 등의 경영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최근 프라이빗 बैं킹 시장 동향과 국내 업체의 대응 전략

- (개요) 최근 국내외 우수 은행들이 고수익 사업인 프라이빗 बैं킹(Private Banking)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프라이빗 बैं킹이란 은행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예금·주식·부동산 등 자산을 일대일로 특별 관리해 주는 고객 서비스를 말함
 - 해외의 경우, 위탁자산의 평균 1% 수준을 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국내는 수수료 없이 판매 과생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음

- (해외) UBS와 같은 대형 은행들은 리테일 बैं킹-PB-기업금융의 연계에, 픽텟(Pitect)과 같은 전문회사들은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에 주력
 - (대형 금융회사) 글로벌 소매금융을 통해 고객을 발굴하고, 계열사간 연계를 통해 기업금융에 투자하는 사업모델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전문 PB 회사) 픽텟, 줄리어스베어 등은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로 UBS, 씨티그룹 등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음

- (국내 업체의 대응) 상품과 사업모델 부족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에 치중하고 있어, 기업금융과 연계한 사업모델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 상품보다는 부동산중개, 임대관리 등 개인고객 중심의 조언과 헬스케어, 세금 등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자산운영회사의 M&A와 제휴를 통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개발, 일정 수익 이상 시 자산관리 수수료 도입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

< 국내외 프라이빗 बैं킹의 전략 비교 >

구분	해 외	구분	국 내
UBS	- 계열사인 투자은행, 자산관리회사 등과 연계하여 상품 개발	신한은행	- 부동산 중개, 임대관리, 유언상속, 헬스케어 서비스 실시
HSBC	- 글로벌 멤버십카드 서비스로 글로벌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	- 금액별 맞춤 서비스 (예: 1억-맞춤형 상품, 10억-라이프 케어)
CS	- PB를 통해 자금 확보 후, M&A 유가증권 발행 인수에 투자	외환은행	- 외환 관련 노하우와 해외펀드, 외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바클레이스	- 한해 700여 개의 신상품을 출시, 60%가 자체 상품	우리은행	- '모의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등 서비스 실시

□ 서울 ‘생활의 질’ 세계 89위

■ 서울이 ‘생활의 질’ 기준으로 세계 215개 도시 가운데 89위로 평가됨

- 국제적 컨설팅업체인 머서 휴먼 리서치 컨설팅(MHRC)에 따르면 서울의 순위는 올해 89위(지난해 90위)임(여수는 109위, 울산은 116위)
- MHRC가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정치·사회 △경제 환경 △의료·보건 △교육 △공공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소비재 △주택 △자연 환경 등 39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 도시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ving)을 평가하는데, 미국 뉴욕(100)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평가임
- 특히 머서가 매년 펴내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현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데 비해, ‘생활의 질’은 다국적 기업 근로자들의 해외 거주 가이드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스위스의 취리히(108.2점)와 제네바, 캐나다의 밴쿠버가 1, 2, 3위에 오름

- 이밖에 오스트리아의 빈(4위)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5위), 독일의 뒤셀도르프(6위)와 프랑크푸르트(7위), 뮌헨(8위), 스위스의 베른, 호주의 시드니(공동 9위)도 10위 안에 드는 도시임
-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34위), 도쿄(35위), 요코하마(37위) 등이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중국에서는 상하이(103위)가 가장 높음
- 바르다드는 평점 14.5점으로 3년 연속 최악의 도시로 조사됨

□ 마이거진(Mygazine)

■ 인터넷 판매를 겨냥해 일반적인 기사와 독자가 주문한 콘텐츠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잡지를 말함

- 예컨대 미국의 리빙 잡지, <구어메이(Gourmet)>의 마이거진은 독자의 관심과 취미, 그리고 독자 개인의 프로필에 근거하여 편집한 각종 기사, 리뷰, 요리법 등을 정규 기사와 함께 신게 될 것임
- 독자가 고기를 넣은 요리를 원치 않으면 그 내용은 제외됨

■ 마이거진은 전자책 산업과 발맞춰 시장에 나올 고속 컬러프린터와 가정용 제본기에 의해 가능해질 것임

- 잡지사가 개별 독자 개개인에 맞춰 마이거진으로 만드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존과 몇몇 웹사이트가 독자에게 책을 추천할 때 사용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른바 ‘공동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고객들간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자들을 몇 가지 공통된 관심 사항으로 묶을 필요가 있을 것임

□ 국제 금융 허브 런던의 화려한 부활*

- (런던의 위상 회복) 美 경제의 급속한 부상과 달러의 기축 통화화로 인해 세계 금융의 허브 역할을 미국 뉴욕에게 내준 런던금융시장의 위상이 최근 급격히 회복되면서 뉴욕과 함께 세계 금융의 양대 축을 이룸
 - (현재의 위상) 런던금융시장은 국가간 대출 시장 점유율 20%, 국제채권 유통시장 점유율 70%, 세계 외환시장 점유율 31% 등 세계 금융 중심지로 재부상하고 있음
 - (위상 회복 원인) 대처정부의 금융개혁, 금융감독체제의 단일화, 미국의 규제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 등으로 런던금융시장의 세계적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
 - 대처정부의 개혁: 1979년 외환자유화조치를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출 촉진, 1986년 은행의 증권업 진출 허용을 통한 겸업화, 증권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규제 폐지 등 소위 빅뱅이라 불리는 증권시장 자유화 조치 등을 통해 선진 금융 중심지로서의 재도약 발판 마련
 - 금융감독체제의 단일화: 2000년 단일 통합금융법인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10개의 자율 규제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청’ 설립을 통해 금융감독체제를 단일화함으로써 절제된 시장 규제에 성공
 - 미국의 규제 강화: 기존 회계 기준을 강화시킨 사베인옥슬리法 제정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던 외국 기업들의 미국 회피 현상을 낳았으며, 9·11테러와 미국의 경제 국수주의 강화로 아랍권의 對美 반감이 고조되면서 중동의 각종 펀드들 또한 런던금융시장을 선호하게 함
 - 다양성의 수용: 세계 각국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면서 다양성을 추구, 이로 인해 세계의 인재들이 런던금융시장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다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정보기술의 발전 활용: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의 적극 도입으로 런던의 주식 및 파생상품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음
- (전망) 영국의 런던금융시장은 규제 완화와 경쟁촉진적인 환경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쟁력 향상으로 향후 뉴욕금융시장과 세계 금융시장 허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5.04.17)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세계적인 석학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그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A Whole New Mind)에서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창조 능력, 공감하는 능력,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 하이컨셉(High-concept)과 하이터치(High-touch)의 시대로 천천히 이동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컨셉은 패턴과 기회를 감지하고, 예술적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며,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 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하이터치**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잘 유도해 내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이를 추구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다니엘 핑크는 이를 6가지로 정리하고, 이들 조건을 갖춘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디자인 (design)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단순히 기능만 갖춘 제품, 서비스, 경험, 라이프스타일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이와 함께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좋은 감정을 선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경제적, 개인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스토리 (story)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삶은 정보와 데이터로 넘쳐나고 있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분명 당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낼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설득, 의사소통, 자기 이해 등은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밑받침이다.

③ 조화 (symphony)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 산업화 시대 및 정보

화 시대에서는 집중과 전문화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보 기술 발달로 인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생겨났다. 바로 작은 부분들을 붙이는 능력, ‘조화’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현 시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은 ‘분석’이 아니라 ‘통합’이다. 즉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질적인 조각들을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④ 공감 (empathy)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필요하다. 논리적인 사고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보가 풍부하고 분석적인 도구가 발전한 세계에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별화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⑤ 놀이 (play)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놀이도 필요하다. 웃음, 명랑한 마음, 게임, 유머가 건강 면에서 사회적 성공 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들은 많다. 물론 진지해져야 하는 때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지나친 진지함은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적인 풍요로운 삶도 망치고 만다. 하이컨셉 시대에는 업무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마음의 여유를 즐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⑥ 의미 (meaning)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숨 막힐 정도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물질적 풍요는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생존투쟁에서 해방시켰으며 좀더 깊은 의미를 모색하게 이끌었다. 목적의식, 초월적인 가치,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감이 그것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필수적인 능력으로 떠올랐다.

“미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이다.”

- 엘리노어 루즈벨트(1844~1962) : 미국의 퍼스트레이디